

독일의 청년보장제도

Isabelle Le Mouillour (독일 연방직업훈련연구소(BIBB),
직업교육훈련 국제비교·연구·모니터링 팀장)*

■ 머리말

2017년 독일의 몇몇 일간지는 “청년보장제도는 결국 헛된 약속이었다”라는 헤드라인으로 2013년 유럽의 경제 및 사회적 위기 속에서 도입한 청년보장제도의 이행 상황을 평가했다. 2007~2013년 경제 위기 동안 여러 유럽 국가의 청년실업률은 40%를 상회했으며, 15~29세 인구 중 니트(NEET) 비율이 16%에 달했다.¹⁾

2013년의 청년보장제도는 유럽 전체에서 등록된 대상자의 62%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었다. 이후 2020년 강화된 청년보장제도가 발표되고 예산이 증액되었다. 2020년은 전 세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유럽 역시 코로나19 위기에 큰 타격을 받은 상황이었으며, 특히 청년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2013년 이후 독일의 청년실업 수치는 유럽에서 가장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이는 (일부 취약점은 있으나)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와 노동시장이 지니고 있는 특성 덕분이다. 독일의 29세 미만 청년실업률은 2013년 7%, 2019년 4.3%를 기록한 반면, 남유럽 국가인 스페인과 그리스의 청년실업률은 2013년에 각각 41.4%, 48.6%,

* lemouillour@bibb.de

1) Eurofound(2021), *Impact of COVID-19 on Young People in the EU*,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p.3.

2019년에는 이보다 감소한 24.7%, 28.2%를 기록했다.²⁾ 청년보장제도와 청년실업률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이 글에서는 EU 청년보장제도를 소개하고 독일의 경험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EU 청년보장제도

EU 청년보장제도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 하나이자 회원국에게 청년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개발하도록 촉구하는 유럽 차원의 중요한 제도이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2013년 EU 이사회의 청년보장제도 권고는 25세 미만의 모든 청년에게 실직하거나 정규교육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질의 고용과 지속적인 교육, 견습 또는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³⁾ 유럽 차원에서는 유럽사회기금(ESF)과 청년고용이니셔티브(YEI)가 청년보장제도의 세부방안 이행을 지원한다.⁴⁾ 청년보장제도와 관련해 EU 전체 및 회원국 차원에서 중요한 지표는 니트 규모이다. 2013년 EU 전체의 니트는 750만 명으로 전체 유럽 청년의 12.9%를 차지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전기 중등교육도 마치지 못했다.⁵⁾ 2017년 11월, 청년보장제도는 유럽 사회권 기본축(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의 제4 원칙에 따라 이 기본축으로 이관되었다. 제4 원칙에는 청년이 실직하거나 정규교육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질의 교육, 견습, 훈련 또는 고용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⁶⁾

2) Eurostat(2021), “Youth Unemployment Rate by Sex, Age, and Country of Birth”, <https://appsso.eurostat.ec.europa.eu> (검색일: 2021.11.30).

3) European Council(2013), “Council Recommendation of 22 April 2013 Establishing a Youth Guarantee(2013/C 120/01)”,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120/1, pp.1~6.

4) Deutscher Bundestag(2020), “Antwort der Bundesregierung auf die Kleine Anfrage der Abgeordneten Matthias Seestern-Pauly, Katja Suding, Griogorios Aggelidis, weiterer Abgeordneter und der Fraktion der FDP”, <https://dserver.bundestag.de> (검색일: 2021.11.30).

5) European Council(2013), *op. cit.*

6) European Council(2020), “Council Recommendation of 30 October 2020 on a Bridge to Jobs - Reinforcing the Youth Guarantee and Replacing the Council Recommendation of 22 April 2013 on Establishing a Youth Guarantee(2020/C 372/01)”,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372/1, pp.1~9.

2020년에는 2013년 청년보장제도를 재정립하고 더욱 발전시킨 강화된 청년보장제도 권고가 발표됐다.⁷⁾ 강화된 청년보장제도는 청년의 연령범위를 29세까지 상향하고 차세대 EU(NextGenerationEU) 및 유럽회복계획 등의 경제회복기금과 연계되는 등 더욱 포용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성격은 강화된 청년보장제도가 취약계층(저숙련 노동자, 비도시 및 외딴 지역 거주자, 장애 청년, 이주민, 소수인종 및 소수민족 청년) 통합뿐만 아니라 니트의 성별격차 문제도 다룬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강화된 청년보장제도는 코로나19 위기의 여파에 따른 이른바 “잃어버린 세대”가 안고 있는 과제에 접근하고 있다. 가장 비관적인 전망은 코로나19 이후 유럽의 청년실업자가 4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청년실업률(15~29세)이 전체 인구 대비 14%, 15~74세 인구 대비 7%를 기록했다.⁸⁾ 강화된 청년보장제도 실행방안에는 2030년까지 15~29세 청년의 고용전망을 개선함으로써 청년니트 비율을 12.6%(2019년 기준)에서 9%로 낮추려는 목표가 담겨 있는데,⁹⁾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표 1> 강화된 청년보장제도의 회원국 권고사항

실행 영역	회원국 개발 방안
매핑	- 니트의 다양성 이해 - 지원 서비스(기술수요 예측 포함) 계획 - 니트 위험군에 대한 조기 경고 및 추적 시스템 개발
선제적 접근	- 인식제고 활동 개발 -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개발 - 취약계층 중점 전략 개발
준비	- 프로파일링 툴을 이용한 맞춤형 실행 계획 수립 - 상담, 지도 및 멘토링 강화 - 디지털 기술 개발 지원 - 기술 평가, 개선 및 인정
기회 제공	- 목표 대상을 정하여 정교하게 설계된 고용 인센티브 제공 - 고용의 질과 형평성 보장을 위해 현행 기준에 따른 기회 제공 - 배치 후 지원 및 피드백 제공
조력 요소	- 모든 정부단위(시민사회 포함) 사이의 파트너십 강화 -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 체계 개선 - 유럽기금의 적절한 활용

자료 : European Council(2020)의 내용을 필자 정리.

7) Ibid.

8) Konle-Seidl, R. and F. Picarella(2021), “Youth in Europe : Effects of COVID-19 on Their Economic and Social Situation”, <https://www.europarl.europa.eu> (검색일 : 2021.11.30).

9) Eurofound(2021), *op. cit.*, p.54.

할 때 야심찬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목표는 2021년 3월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유럽 사회권 기본축 실행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다. 목표달성을 위해 닷넷 비율이 EU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회원국은 청년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모든 유럽사회기금플러스 재정의 12.5% 이상을 청년보장제도 시행에 사용해야 한다. 또한 강화된 청년보장제도는 코로나19가 유럽의 청년실업에 미치는(또는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공공고용서비스를 제도의 핵심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의 교육 분야에 확고히 자리잡고 있는 공개조정 방식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분야에 적용되며, EU 회원국은 주요 실행 영역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서 이행할 것으로 기대된다(표 1 참조).

■ 독일의 청년보장제도

독일은 중앙 연방정부와 16개 주에 관련 부처를 둔 연방국가로, 청년보장제도의 이행은 연방노동사회부 관할이다. 연방노동사회부는 청년보장제도를 수립·관리하며 모든 정부단위와 산업부문의 관련 부처 및 사회적 파트너 간의 의견 조율을 담당한다. 독일의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이를 위해 유럽 차원의 재정적 기회를 활용하려는 노력은 2018년 3월 연정협약으로 더욱 확대되었다.¹⁰⁾ 정당들은 직업교육훈련 이해관계자와 함께 2015년 “초기 및 향상 훈련을 위한 연합”에서 이러한 접근방식을 확인했다. 이후 연합의 2019~2022년 계획이 갱신되었고, 2021년에는 특히 직업교육훈련 제공 기업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실행계획을 포함하여 다시 한 번 갱신되었다.¹¹⁾ 또한 2020년 6월에 발표한 경기부양 패키지에는 “직업교육 일자리 안정화”라는 연방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¹²⁾ 이 프로그램은 청년실업에 대처하기 위해 실시했던 유사 방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파트너들과 공조하여 설계되었다. 그렇지만, 예비 증거에 따르면 2020년에 제공된 직업교육훈련 기회는 2019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¹³⁾ 2020년 독일 직업교육

10) Deutscher Bundestag(2020), *op. cit.*

11)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2021), “Partner der Allianz für Aus- und Weiterbildung beschließen “Gemeinsame Aktion zur Stärkung von Ausbildungsbetrieben und jungen Menschen in der Corona-Pandemie””, <https://www.bmwi.de> (검색일: 2021.11.30).

12) Deutscher Bundestag(2020), *op. cit.*

13) Eurofound(2021), *op. cit.*, p.63.

훈련제도에 68만 4천 명(이 중 47.6%는 여성)이 신규 진입했으며 그중 43만 9,300명이 견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¹⁴⁾ 니트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원활한 운영뿐만 아니라 교육 및 노동시장 정책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역시 중요하다.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는 조합주의적 접근법이 특징이며, 이에 따라 모든 이해당사자가 협력하고 사용자가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일에서는 EU 청년보장제도 이행을 위한 국가실행계획이 2014년 4월에 처음 채택되었다. 당시 (현재 역시)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EU 평균에 비해 월등히 낮았고 직업훈련을 이수한 청년의 수가 비교적 많았기 때문에, 독일의 청년보장제도는 청년실업 하향세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고용서비스기관과 일자리 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지원과 진로지도 서비스에 대한 평가에도 우선순위를 두었다. 하지만 고용서비스기관이나 일자리 센터에 실직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이들도 독립적인 청년복지기관이나 연방 및 주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 청년보장제도의 성공에 특히 중요한 요소는 사회적 파트너와 청년단체의 파트너십과 같이 현장의 모든 관계자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관련 주체 간에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다.¹⁵⁾ 특히 청년의 커리어를 위한 원스톱 지원 센터가 혁신적인 개혁으로 손꼽히는데, 원스톱 지원 센터는 공공고용서비스, 교육, 청년 대상 사회서비스 및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수준의 관련 제도를 모두 결합하여 제공한다.¹⁶⁾

연방정부는 전반적인 니트 문제를 해결하거나 니트 개개인을 지원하기 위해 니트 정책에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왔으며, 이는 한부모 청년이나 장애 청년에게도 적용되었다. 2019년 독일의 15~24세 인구 중 니트 비율은 5.7%였으며, 15~19세에서는 2.8%, 20~24세에서는 8.3%를 차지했다.¹⁷⁾ 비교적 청년니트 비율이 낮은 독일에서조차 나이가 더 많은 청년에게서

14)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2021), “Berufsbildungsbericht 2021”, <https://www.bmbf.de> (검색일: 2021.11.30).

15) Schultheis, K., S. Sell and L. Becher(2021), “Berufliche Bildung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https://www.bpb.de> (검색일: 2021.11.22).

16) Dingeldey, I., L. Steinberg and M. Assmann(2019), “Horizontal and Vertical Coordination of the European Youth Guarantee”, in Hviden, B., C. Hyggen, M. A. Schoyen and T. Sirovatka (eds.) *Youth Unemployment and Job Insecurity in Europe. Problems, Risk Factors, and Policies*.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pp.184~205.

17) Deutscher Bundestag(2020), *op. cit.*

니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강화된 청년보장제도가 수혜자의 연령 상한을 29세까지 확대한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한다.

강화된 청년보장제도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가 마련한 조치는 <표 2>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표 2> 청년보장제도 이행을 위한 독일 연방정부의 조치

1. 니트청년 중심의 훈련 준비 및 촉진 방안		
	대상 집단	목표
직업준비를 위한 교육조치	취약계층 및 학습에 곤란을 겪고 있는 청년	
입직자격 준비	개인적인 사유로 취업 전망이 제한적이거나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청년	사내 훈련 기회 제공
도우미 보조 훈련	장애 청년	
사외 직업훈련	장애 청년	사내 직업훈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훈련수당 지원금	장애 및 중증장애 견습생	기업이 훈련수당 또는 기타 유사 수당에 대한 지원금 없이 훈련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 사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
2.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는 연방 프로그램		
	대상 집단	목표
진로지도 지원을 위한 유럽사회기금 연방 프로그램	전기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성적 부진 학생	마지막 전 학년도부터 지원을 시작하며 그로부터 최대 24개월 이내에 전환부문 ¹⁸⁾ 에 진입한 경우, 훈련 첫 6개월까지 지원. 코칭을 통해 학생에게 동기부여하고, 부모, 기업, 상공회의소, 고용서비스기관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
존중 연방 프로그램	사각지대 청년	생활이 어려운 청년이 학업, 취업촉진 프로그램, 훈련 또는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 청년고용 강화를 위한 유럽사회기금 연방 프로그램	지자체(공공 청년복지서비스 기관)	학업에서 일자리로 이행하는 과정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위한 서비스 개발. 청년을 직업적·사회적으로 통합하는 데 목적이 있음.
직업훈련 일자리 유지를 위한 연방 프로그램	직원 249명 이하의 중소기업 중 등록된 훈련 업종에서 직업훈련을 제공하거나, 연방법 또는 주법의 규제를 받는 보건 및 사회복지 부문에서 실습 통합 훈련을 제공하는 기업	훈련 제공 기업이 현행 훈련 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훈련생의 단시간 근무를 예방하며, 코로나19로 인해 파산한 기업의 훈련생이 훈련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

18) 학교 외 기관의 지원 혹은 학교기반 교육과정이 전문 직업자격을 갖추기에 불충분할 경우 전환부문에 배정된다. 전환부문은 이어지는 직업교육훈련 과정의 첫해로 인정되거나 전문 직업자격을 제공하는 직업교육훈련에 진입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부분적인 자격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3. 제도적 협력 및 파트너십		
	대상 집단	목표
청년고용서비스기관	청년	청년의 직업 및 사회적 참여를 위해 고용서비스 기관, 일자리 센터, 청년고용서비스기관의 청년 복지 담당 부서가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교육과 훈련을 위한 연합	청년 및 성인 학생	최대한 많은 이들이 직업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며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제도를 강화함. 또한 직업교육훈련의 질, 매력도 및 성과를 향상시키고 청년을 교육과 훈련에 통합시키는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교육과 직업자격 연계 이니셔티브의 추가 개발	청년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이행 지원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용자 인식 개선	중증장애인	사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잠재력을 이해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이 일자리를 구하도록 지원. 사용자 대상 홍보에 상담 및 취업 알선 서비스 결합

자료 : Deutscher Bundestag(2020), *op. cit.*

독일 연방고용청 통계에 따르면,¹⁹⁾ 2019년에는 25세 미만 청년 중 약 92만 1천 명이 청년보장제도에 참여했고, 그중 38만 7천 명은 재참여자였다(최신 자료는 미발표). 2014년에 청년보장제도가 시행되자 이전 제도에 참여하고 있던 청년들이 청년보장제도로 편입되면서 초기에는 약 130만 명이 청년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았고, 2015년에는 참여자 수가 98만 7천 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청년보장제도에 참여하는 청년은 단순히 실직자에 국한되지 않고, 실직 상태는 아니지만 훈련을 원하는 이들도 포함된다. 2019년에 청년보장제도에 참여했던 92만 1천 명 중 약 66만 1천 명은 취업, 교육, 훈련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과정으로 이동했다. 그중 절반이 넘는 약 48만 5천 명은 청년보장제도 참여 기간이 4개월 미만이었으며, 약 3만 3천 명은 12개월 이상 청년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표 3>은 2014~2019년 사이에 청년보장제도 참여를 마친 청년의 분포를 보여준다. 같은 기간 청년보장제도를 성공적으로 마친 비율²⁰⁾은 약 72%이며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았다. 청년보장제도의 여성 참여자 수와 성공적으로

19) Deutscher Bundestag(2020), *op. cit.*

20) 취업, 교육, 훈련 및 기타 상응하는 과정으로 이동한 경우 청년보장제도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본다.

<표 3> 독일 청년보장제도 참여를 마친 청년(15~24세)의 분포(2014~2019년)

(단위: 명)

연도	청년보장제도 참여를 마친 청년			그중 성공적으로 참여를 마친 청년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2014	985,635	563,897	421,738	711,034	416,745	294,289
2015	989,921	572,364	417,557	704,540	417,721	286,819
2016	1,019,812	610,025	409,787	725,333	445,865	279,468
2017	1,034,190	630,018	404,172	744,683	466,477	278,206
2018	964,667	586,062	378,605	697,091	434,443	262,648
2019	920,533	558,070	362,463	660,879	409,561	251,318

자료: Deutscher Bundestag(2020), *op. cit.*

마친 여성 수는 해가 거듭될수록 감소했다. 특히 청년보장제도를 성공적으로 마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41%에서 2019년에 38%로 줄어 들었다.

■ 맺음말 : 독일의 청년보장제도 검토

통계 또는 목표 측면에서 보면 독일은 니트와 관련해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고, 2007~2013년의 경제 및 사회적 위기와 2020~2021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평균적으로 양호한 수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 독일에서는 2017년 전체 니트의 약 67%가 청년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직업교육훈련 후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보면, 직업교육훈련은 일자리 측면에서 청년을 통합하고 청년의 향후 전망을 개선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9년 전체 직업교육훈련 이수자의 23.4%에 해당하는 약 9만 명이 훈련 직후에는 일자리를 얻지 못했으나, 2009년 이후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마이크로센서스(Microcensus)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직업교육훈련을 마친 18~24세의 실업률은 2.9%에 불과하다.²¹⁾ 이는 독

21)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2021), "Datenreport zum Berufsbildungsbericht 2021. Informationen und Analysen zur Entwicklung der beruflichen Bildung", <https://www.bibb.de> (검색일: 2021.11.22).

일의 청년보장제도에서 직업교육훈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일부 개선을 위한 검토도 필요하다.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에 발표한 청년보장제도 이행에 관한 국가별 보고서에서 독일이 취한 조치(표 2 참조)의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²²⁾ 하지만 동시에 청년보장제도 성과가 가장 우수한 지역과 가장 저조한 지역 사이의 니트 비율이 약 6%p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며, 지역 및 부문 간 격차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주민 청년이 학업성취 면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연방직업훈련 연구소(BIBB)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격차는 직업교육훈련제도에서 학습자의 지역, 배경 및 부문에 따라 발견되는 격차와 일치한다.²³⁾ 2021년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에 대한 성명에서 사용자 대표들은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업, 특히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에서 근로할 수도 있는 노동력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²⁴⁾

독일노총은 잃어버린 세대의 등장을 우려하며, 강화된 청년보장제도가 확정되기 전 이 제도가 수혜자에게 실질적으로 양질의 노동조건과 사회보장(실업보험, 산재보험, 아픈 경우에도 지속적인 임금 지급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체계를 확립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EU 정책결정자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²⁵⁾ 강화된 청년보장제도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조치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사회 및 교육 정책과 연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년보장제도는 EU 이사회에 권고사항이지만 여러 정책분야의 교차로에 자리잡아 주요 기금의 지원을 받는 만큼, 독일과 유럽 전체에서 강력한 정책 기제가 될 것이다. **KLI**

22) European Commission(2020), “Youth Guarantee Country by Country. Germany”, <https://ec.europa.eu> (검색일 : 2021.11.23).

23)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2021), *op. cit*

24) *Ibid.*

25) Deutscher Gewerkschaftsbund(2020), “Gute Jobs statt “verlorener Generation” – Wo bleibt die “verstärkte” Jugendgarantie?”, <https://www.dgb.de> (검색일 : 2021.11.13).

참고문헌

-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2021), “Datenreport zum Berufsbildungsbericht 2021. Informationen und Analysen zur Entwicklung der beruflichen Bildung”, <https://www.bibb.de> (검색일 : 2021.11.22).
-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2021), “Berufsbildungsbericht 2021”, <https://www.bmbf.de> (검색일 : 2021.11.30).
-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2021), “Partner der Allianz für Aus- und Weiterbildung beschließen “Gemeinsame Aktion zur Stärkung von Ausbildungsbetrieben und jungen Menschen in der Corona-Pandemie””, <https://www.bmwi.de> (검색일 : 2021.11.30).
- Deutscher Bundestag(2020), “Antwort der Bundesregierung auf die Kleine Anfrage der Abgeordneten Matthias Seestern-Pauly, Katja Suding, Griogorios Aggelidis, weiterer Abgeordneter und der Fraktion der FDP”, <https://dserver.bundestag.de> (검색일 : 2021.11.30).
- Deutscher Gewerkschaftsbund(2020), “Gute Jobs statt “verlorener Generation” – Wo bleibt die “verstärkte” Jugendgarantie?”, <https://www.dgb.de> (검색일 : 2021.11.13).
- Dingeldey, I., L. Steinberg and M. Assmann(2019), “Horizontal and Vertical Coordination of the European Youth Guarantee”, in Hviden, B., C. Hyggen, M. A. Schoyen and T. Sirovatka (eds.) *Youth Unemployment and Job Insecurity in Europe. Problems, Risk Factors, and Policies*. Cheltenham : Edward Elgar Publishing, pp.184~205.
- Eurofound(2021), *Impact of COVID-19 on Young People in the EU*, Luxemburg :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European Commission(2020), “Youth Guarantee Country by Country. Germany”, <https://ec.europa.eu> (검색일 : 2021.11.23).
- European Council(2013), “Council Recommendation of 22 April 2013 Establishing a Youth Guarantee (2013/C 120/01)”,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120/1, pp.1~6.
- _____(2020), “Council Recommendation of 30 October 2020 on a Bridge to Jobs - Reinforcing the Youth Guarantee and Replacing the Council Recommendation of 22 April 2013 on Establishing a Youth Guarantee (2020/C 372/01)”,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372/1, pp.1~9.
- Eurostat(2021), “Youth Unemployment Rate by Sex, Age, and Country of Birth”, <https://appsso.eurostat.ec.europa.eu> (검색일 : 2021.11.30).
- Konle-Seidl, R. and F. Picarella(2021), “Youth in Europe : Effects of COVID-19 on Their Economic and

Social Situation”, <https://www.europarl.europa.eu> (검색일 : 2021.11.30).

· Schultheis, K., S. Sell and L. Becher(2021), “Berufliche Bildung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https://www.bpb.de> (검색일 : 2021.11.22).